

구조헬기 부족...응급상황 골든타임 놓칠 우려

수색 투입에 일부는 정비중...해상 긴급구조 '비상' 거문도 해상 구급 신고, 인근 경비정 투입 구조하기도

전남 도서 지역의 열악한 응급 구조 시스템 여건이 가거도 헬기 추락 사고로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상당수 정비·인원 등이 헬기 실종 사건과 관련, 수색 등에 투입되면서도 섬 관 광객이 급증하는 행락철, 응급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해상에서의 '골든 타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소속 항공단 내 목포항공대의 경우 3대의 헬기를 구조·구급 등 상황에 투입해왔지만 최근 사고기(B-511) 뿐만 아니라 B-

512 헬기도 지난 9월부터 정비에 들어가면서 1대의 헬기만 운영하는 실정이다. 비상 상황에 운영할 수 있는 헬기가 1대 밖에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동체에 날개가 달린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가 확보돼야 운행이 가능한 점 때문에 도서지역 응급 환자 이송에는 부적절하다. 사실상 여수항공대 관할 도서 지역의 긴급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헬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당장, 여수해경의 경우 가거도 헬기 추락 사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 6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인근 3.2km 해상에서 향해 중이던 시멘트 운반선의 구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통상적인 헬기 출동 대신, 인근 경비정을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해경은 거문도·초도 등 60km 이상 운항해야 하는 구간의 경우 항공대에 헬기 출동을 요청하지만 이날 헬기는 가거도 인근 여수항공대에 비속하다. 보유하고 있는

고정의 항공기 2대와 헬기 2대 중 사고 해역의 수색 활동에 2대가 투입된데다, 남은 헬기 1대가 정비에 들어갔다. 여기에 동체에 날개가 달린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가 확보돼야 운행이 가능한 점 때문에 도서지역 응급 환자 이송에는 부적절하다. 사실상 여수항공대 관할 도서 지역의 긴급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헬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당장, 여수해경의 경우 가거도 헬기 추락 사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 6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인근 3.2km 해상에서 향해 중이던 시멘트 운반선의 구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통상적인 헬기 출동 대신, 인근 경비정을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해경은 거문도·초도 등 60km 이상 운항해야 하는 구간의 경우 항공대에 헬기 출동을 요청하지만 이날 헬기는 가거도 인근

해역에 투입돼 현장 13km 이내에서 주변 근무를 서던 경비정 508함(500t급)을 투입시켰다.

목포·여수 항공대의 헬기 이송 건수는 지난 2012년 99건·2013년 115건·2014년 113건 등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소방항공대도 여의치않다. 헬기 2대 중 2006년에 도입된 2호기(BELL-430)가 16일부터 3개월 정기 정비에 들어가 남은 한 대로 모든 비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 건수는 312건(해안도서 188건·내륙 124건)으로 전년도(240건)에 비해 3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소방항공대는 남은 헬기를 사고 해역 수색에 투입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사고 다음날인 14일 거문도와 고흥 외나로도 를 2시간 간격으로 오가며 환자 이송에 나

전남 출동가능 구조헬기 보니
●목포항공대
사고기 제외 2기 중 1기 정비
1기만 남아 수색 지원 못나가
●여수항공대
2기는 수색 투입...1기는 정비
고정의 1기 환자이송 부적절



서해 등 사고 이후 도서지역 5곳을 오가며 응급환자를 옮기는 약전고투를 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폐기물 1만여t 투기 업체 허가취소 불복 되레 소송

광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1만여t의 쓰레기를 무단, 함평 등에 무단투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명성환경은 서구를 상대로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구는 지난달 24일 해당 업체에 허가 취소 사전통지 및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을 내린 뒤 3일 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주)명성환경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380차례에 걸쳐 허수를 정화하고 남은 찌꺼기 등 9400여t을 무단군과 함평군 등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서구는 폐기물관리법(8조·폐기물 투기 금지)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내린 허가 취소 처분(27조)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그러나 즉각 행정소송과 함께 폐기물 반입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주)명성환경 측은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폐기물관리법 8조는 업체가 직접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돼야 하고 중입업 등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회사 측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1만여t 가까운 폐기물을 거래업체 등을 통해 무단 투기한 사실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고, 그에 따른 허가 취소를 내렸는데도 불복한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빠루'로 문 따 순식간에 절도

○초인종을 눌러 반집을 확인한 뒤 노루발못빚이(속칭 빠루)로 눈 깜짝할 새 아파트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절창 신세.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7범인 최모(43)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정모(여·39)씨의 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경찰은 아파트·도로·일반건물에 설치된 CCTV 60여대와 주차된 차량 50여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끝에 그를 용의자로 특정된 후 광산구의 한 PC게임방에 있던 최씨를 체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섬 지역 기상 정보 부실 '눈대중' 의존해 목숨 건 비행

신안 가거도 응급환자 이송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기상청의 무능한 기상 예측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해상 날씨 정보가 섬을 찾는 관광객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주요 도서 지역의 기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제공하는 장비·시설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정거리 관측할 수 있는 시정계 설치 2곳 불과

현지 주민 등이 알려진 기상상황 듣고 출동 일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유인도 296곳 중 해상 시정(視程)거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정계가 설치된 섬은 신안군 흑산·압해도 2곳에 불과하다. 기상청 직원이 오랜 숙련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정비를 활용, 시정 거리를 제공하는 섬이 이들 섬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머지 섬의 경우 해양 기상 관측 장비 뿐 아니라 기상 전문가조차 없어 섬 마을 이장 등 주민, 자치단체 출장소나 해양안전본부 직원이 '눈대중'으로 하늘을 훑어본 뒤 판단해 제공하는 형편이다.

해양안전본부·소방본부 등 구조 당

국의 경우 비전문가들의 '육안(肉眼) 판단'에만 의존, 구급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조차 맑고 흐림, 짙은 안개, 보통 안개 등 세부적 관측 기준이 아닌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발생한 가거도 헬기 추락 사고의 경우 가거도에서 약 100km 떨어진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에 나섰지만 119 헬기가 다른 현지인에게 파악한 당시 가거도 헬기 출동 기준(5km)에 못 미쳤다. 모두 기상청 전문가가 아닌, 현지 주민들의 '목측(目測)'에 따라 판단된 정보였다.

이 뿐 아니라 전남 서·남해안에서 파고·풍향·기온 등 두 종류 이상 해상 기상 자료를 수집하는 장비도 신안군 앞바다·칠바도, 진도 해수서, 여수 거문도·간여암 등 5곳에만 설치된 게 전부다.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바다 날씨 정보 파악이 시급한데도, 현지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이 선박 운항 과정에서 기상청 예보 대신 인근 어선들이 보내온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전남 서·남해안 유인도에 2~3개의 시정계를 설치하는 등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pboxer@kwangju.co.kr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16일 오후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출발한 소방차량이 말바우 시장에서 민방위 대피훈련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5분 이내 도착) 확보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경 잠수사·해양조사선 투입 수색

방파제 인근 해상 집중 조사...추가 실종자 못 찾아

신안군 가거도 앞 해상에 추락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B-511) 실종자와 동체 수색 작업 나흘째인 1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잠수사와 해양조사선을 투입, 방파제 인근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수색도 3개 구역으로 나눠 사고 추정 지점을 기준으로 확대(반경 55.6×46.3km)했다. 서해해경본부는 최초로 헬기 기체가 발견된 지점인 방파제 부근 300m 해상에

해경 중앙특수구조단 잠수사 10여명을 동원, 집중 수색 수색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6시 현장에 도착한 국립해양조사선 바다1호(695t)가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멀티빔과 사이드스캔 소나를 이용해 수중 수색에 참여했다.

사고 해역에는 해경 합정 19척을 비롯해 해군과 민간어선, 관공선 등 38척과 항공기 10대를 동원해 해상 수색 작업을 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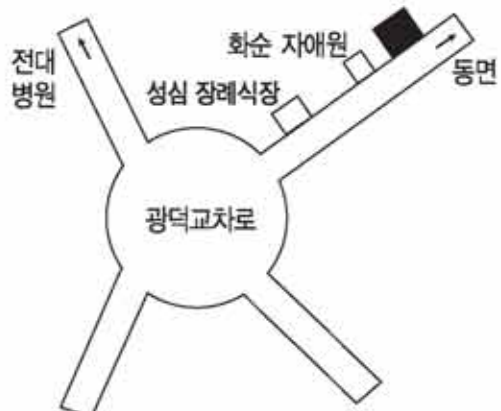
고 있다. 항공기 10대도 기상 여건에 따라 항공 순찰을 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직후 박근수 경장을 발견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실종자 찾지 못했다.

현장에서 헬기 꼬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기체 일부를 비롯해 구명벌, 장갑 등 45종에 57점의 부유 물품을 인양했다. 사고 헬기는 13일 오후 8시 2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5.5km 해상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는 가거도 보건지소에서 맹장염 증세를 보인 남자 어린이(7)에 대한 이송요청을 받고 방파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목표=김병관기자 dss6116@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7평 - 20층 중 10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무등산 방향
- 전체 올수리, 즉시 입주
- 매매 - 5200만원
- 29평 - 20층 중 10층
- 양동 하천방향, 내부 깨끗
- 2015년 5월 입주
- 매매 - 7200만원

오피스텔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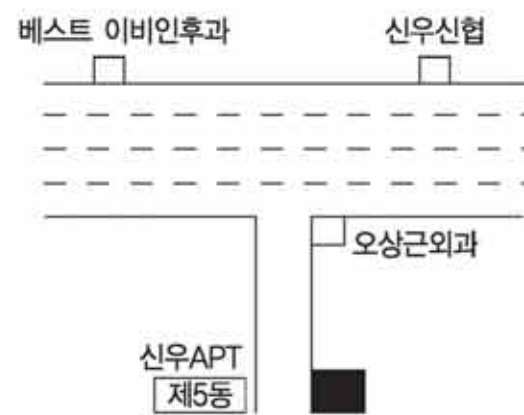
문의 H. 010-3605-5000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18평 - 14층 중 13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대 방향
- 즉시 입주, 내부 깨끗
- 매매 - 3500만원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7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